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의 대중제 골프장 서원힐스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XGOLF가 선정한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스트 9번 홀(왼쪽)과 서우스 9번 홀의 모습.

사진제공 | XGOLF

640야드 짜리 8번홀... 장타 골퍼들에게 '꿈 같은 코스'

(국내 단일홀 최장 서원힐스 웨스트코스 8번홀)

대중 친화 골프장 '서원밸리컨트리클럽'

회원제 18홀 서원밸리·퍼블릭 27홀 서원힐스 캐디 서비스·그린피·코스관리·접근성 호평 사계절 파란잔디...한 겨울에도 라운딩 가능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은 회원제 18홀 서원밸리와 퍼블릭 27홀 서원힐스로 구성돼 있다. 서원힐스는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난 퍼블릭 골프장이다.

온라인 골프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XGOLF 홈페이지의 골프장 평균평점에서 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300여개 골프장 가운데 캐디서비

스, 그린피 만족도, 코스관리, 식음료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린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데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스 관리도 잘 돼 누구나 라운드를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그 덕분에 동아일보와 스포츠동아, XGOLF가 선정한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상서롭고 복된 땅이라는 파주의 옛 지명 '서원'의 이름을 딴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은 금방산 자락 해발고도 70~170m의 정남향 분지에 코스가 들어섰다. 골프장에 일단 들어서면 조용하

고 아늑한 느낌을 받는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으로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편안함을 준다.

예전 임금님의 사냥터로 상서로운 땅의 소위 말하는 명당에 코스가 자리 를 잡았다. 사계절 해가 비치는 정남향에 내려앉은 분지형이어서 한 겨울에도 라운딩이 가능하다. 2012년 가을 총 45홀 대규모의 코스로 재탄생하면서 국제대회 유치에 가능한 7367야드(18홀 기준) 코스가 조성돼 있다.

사계절 내내 파란색 양잔디 페어웨이를 최상의 조건으로 경험할 수 있다. 코스는 넓고 길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칠 수 있는 코스다.

서원힐스 웨스트 코스 8번 홀은 국내 단일 홀(파4)로는 가장 긴 640야드 거리다. 오르막까지 감안하면 700야드가 넘는다. 장타를 자랑하는

골퍼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그니처 홀이다. 송호 디자인그룹과 최등규 회장의 열정이 녹아들어 골퍼들에게는 꿈같은 코스를 만들어 냈다.

사우스 코스 8번홀 옆에는 야외 웨딩홀이 있다. 골프장에서의 결혼식을 꿈꾸는 '골프 여제' 박인비가 서원아트리움의 자연 속에서 결혼식을 치러 화제가 된 곳이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은 문화코드의 1번지로도 유명하다.

국내골프장으로는 최초로 2000년부터 자선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콘서트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린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K-POP 팬들이 찾아올 만큼 글로벌한 축제로 발돋움했다. 2017년까지 18년 동안 15회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 때

는 골프장 전체가 축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씨름장, 텐트촌 등으로 탈바꿈한다.

이날만큼은 특별히 골프장 잔디 위에 주차를 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 골프장 회원, 일반인 등을 위해 골프장 전체가 개방된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콘서트를 연다.

해마다 6월에는 파주지역에 거주하는 사정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무료로 합동결혼식까지 열어주고 있다. 서원힐스는 코스도 명품이지만 이처럼 골퍼와 일반인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문화공간으로서 골퍼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골프장을 향한 대중의 편견을 깨준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상도 받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전설' 박세리,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명예조직위원장 위촉

(내년 10월 첫 국내 개최)

8개국 여자프로들이 겨루는 국가대항전 박세리 '국내서 많은 대회 열리는 계기로'

'골프 여왕' 박세리(40)가 2018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세리는 10월 16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위촉식을 갖고 막중한 임무를 넘겨받았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전 세계 골프강국 8개 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프로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자국을 겨루는 국가대항전이다.

2014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초대 대회가 열렸고 2016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2회 대회가 이어졌다. 세계랭킹 상위를 휩쓰는 우리나라가 강력

한 우승후보로 꼽히지만 초대 트로피는 스페인 팀이 2회 우승은 미국 팀이 차지했다.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세리는 세계 여자골프의 전설이다.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데뷔해 곧바로 2승을 거둔 이후 10년 넘게 활약하며 통산 25승을 거뒀다. 그 활약에 힘입어 2007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위촉패를 받은 박세리 위원장은 "이처럼 흥미롭고 규모가 큰 대회의 일원으로 함께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년에 한국에서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개최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여러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2018년 대회 출전이

유력한 주요선수들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한국대표 양희영(28)을 비롯해 다니엘 강(25·미국), 평산산(28·중국), 아자하라 무노즈(30·스페인) 등이 자리를 빛냈다. 세계랭킹 13위의 양희영은 "국가대항전 형식의 대회라는 점에서 직접 참가했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생각난다. 최근 한국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게 된 만큼 남은 기간 좋은 성적을 거둬 내년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대회는 2018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다. 참가국과 출전선수는 2018시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끝난 직후 최종 결정된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골프 여왕' 박세리가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ULIC)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0월 16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케이스 윌리엄스 UL 대표이사(왼쪽), 마이클 안 LPGA 커미셔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세리. 사진제공 | ULIC 조직위원회

농구

DB, 공격농구로 팀 컬러 대변신... 높이의 약점 드러낸 전자랜드

전자랜드, 센터 몰트리 기대 못미쳐 KCC, 에잇 원맨플레이 문제점 노출

개막 첫 주 희비 엇갈린 KBL

정관장 프로농구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가 10월 14일 개막했다. 개막 첫 주 팀 당 1~2경기 치른 가운데 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전주 KCC와 인천 전자랜드가 동반 패배를 맞보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번 시즌 복병이라는 평가를 받은 kt는 첫 경기부터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력 좀다던 전자랜드와 KCC의 동반 패배

전자랜드와 KCC는 멤버 구성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됐지만 개막전에서 나란히 졌다. 전자랜드는 홈 개막전에서 안양 KGC에게 발목을 잡혔다. 16점 차로 크게 졌다. KCC는 원주 DB에게 일격을 당했다. 전자랜드는 우려됐던 높이의 약점이 드러났다. 외국인 센터 아넷 몰트리는 기대에 못미쳤다. KCC는 에이스 안드레 에멧에게 너무 공격이 쏟아졌다. 에멧이 고집스럽게 개인 공격에 집중해 멤버의 화려함을 살리는데 실패하며 개막전을 놓쳤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희망요소는 많다. 두 팀은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가 10월 14일 개막해 첫 주말 일정을 소화했다. 약체로 평가받은 DB(동부)가 우승후보로 꼽힌 KCC를 꺾는 등 초반부터 예상 밖의 경기가 펼쳐졌다. 사진제공 | KBL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전력이 그만큼 좋다.

●약체로 꼽혔지만 함께 웃은 DB와 LG

LG는 고양 오리온과의 원정경기에서 웃었고,

DB는 홈에서 KCC를 제압했다. 두 팀 모두 6강 플레이오프(PO)진출 티켓에 걸려 있거나 하위

권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약체다. LG는 전력이 약한 오리온을 만난 덕도 봤지만 김시래, 조성민, 김종규 등 국내멤버의 힘이 좋았다. 반면 외국인선수의 기량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 DB는 팀 색깔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수비를 지향했지만 이제는 공격에 많은 비중을 뒀다. 디온테 버튼과 두경민의 역할이 컸다. LG와 DB 모두 전력 자체는 약하다. 개막전 승리의 보약이 두 팀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부상 약령 되살아난 kt

kt는 지난 시즌 외국인선수 뿐 아니라 국내 선수들도 돌아가며 부상을 당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외국인선수도 한층 안정됐고, 국내선수들도 준비가 잘 됐다. 하지만 kt는 모비스와의 개막전에서 장신 포워드 김현민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국내선수장인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kt 입장에서 김현민의 부상은 큰 손실이다. 개막전부터 부상 약령이 되살아난 kt가 초반의 불운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최용석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